

KIA 타이거즈, 다시 독주 체제 구축

지난주 삼성·LG상대 6전 전승 기록해 51승27패...2위와 3.5경기차 6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 '화끈한 방망이'...최형우 6G타율 0.615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다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KIA는 지난주(6월27일~7월2일)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6전 전승을 기록했다. 시즌 51승27패를 기록한 KIA는 2위 NC 다이노스(47승17무30패)와의 승차를 3.5경기로 벌렸다. 한 때 공동 1위 자리를 NC에 허용했지만, 곧바로 추격에서 벗어났다. KIA는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워 타 팀들을 압도했다.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프로야

구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6연전에서 모두 79점을 뽑아냈다. 주간 타율이 0.423나 됐다. KIA 간판타자 최형우는 지난주 6경기에서 0.615(26타수 16안타)의 고타율에 1홈런 14타점 12득점을 올리는 등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이범호와 서동욱도 5할대의 타율을 뽑냈다. 이범호는 2홈런에 11타점을 올리면서 KIA 타선을 이끌었다. 김신빈과 이명기, 김주찬, 안치홍 역시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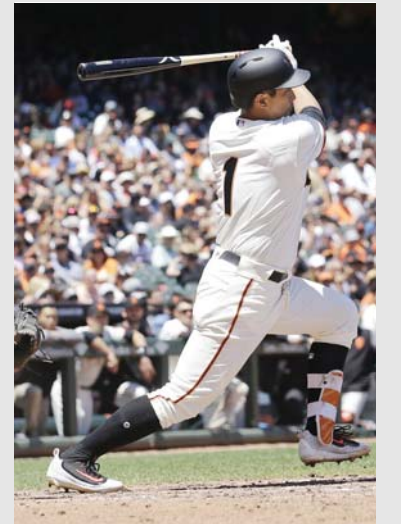
상·하위 타순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타선은 대단했다. 타선의 막강한 지원 속에서 토종 에이스 양현종은 6연승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2승을 수확했다. 팻 딘과 해터 노에시도 1승씩 수확했다. KIA는 4일부터 적지에서 SK와 이범호와 kt 위즈를 차례로 만난다. 롯데 자이언츠는 중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주 4승1패를 기록하는 등 최근 6연승의 고공비행을 했다. 롯데는 시즌 37승1무39패를 기록

해 7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4위 넥센 히어로즈(39승1무37패)와의 승차도 2경기밖에 나지 않는다. 이제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중위권 팀들의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된다. 롯데는 박세웅과 브룩스 레일리, 니 애디튼 김원중 등 선발진이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무리 손승락은 4경기(5⅔이닝)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타선에서는 정준우와 손아섭이 타선을 이끌고 있다. 득점권 상황에서 좋은 타격감을 자랑한다. 롯데는 이번주 삼성, SK와 차례로 격돌한다. 리빌딩에 나선 한화 이글스는 지난주 4승1패를 기록했다. 투수진은 지난주 평균자책점 3.52로 10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김태균과 하주석, 윌리 로사리오 등 타자들이 정확성과 함께 장타력을 뽑내고 있다. SK는 4승2패를 기록해 3위(44승1무34패) 자리를 다졌다. 넥센과의 승차를 4경기로 벌렸다. 선발 메릴 켈리와 윤희상의 호투가 돋보였고 두 차례나 결승타를 때린 정의운의 타격감도 대단했다. 갈 길 바쁜 최하위팀 kt와 9위 삼성, 두산은 지난주 1승밖에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두산은 간신히 5할 승률(37승1무37패)을 지켰다. 순위도 5위로 미끄러졌다. LG는 지난주 승리 없이 1무4패를 기록했다. 마운드가 붕괴되면서 최근 5연패를 당했다. 37승1무38패를 기록해 6위로 내려앉았다. 이번 주에는 올 시즌 열세에 있는 NC와 한화를 상대한다.

황재균, 빅리그 데뷔 첫 멀티히트

추신수 2안타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멀티히트를 날렸다. 황재균은 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러츠와의 원정경기에서 3루수 겸 7번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2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이날 황재균은 비디오 감독 끝에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2회초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황재균은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날렸다. 볼티모어 선발 트레버 윌리엄스의 직구를 노려쳐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 안타는 2-2로 맞선 7회 1사 1.2루에서 나왔다. 피츠버그의 두 번째 투수 토니 왓슨을 상대한 황재균은 투수 앞으로 끌러가는 땅볼을 쳤다. 타구는 상대 투수 쪽으로 전천후 흘러갔고 황재균은 1루로 전력질주했다. 그러나 1루심은 황재균의 아웃으로 판정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곧바로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판정은 번복돼 세이프가 선언됐다. 황재균의 내야안타로 만루를 만든 샌프란시스코는 켈비 톨린슨의 희생플라이로 귀중한 결승 득점을 올렸다. 황재균은 9회 타석에서는 선두타자로 나와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2안타를 친 황재균의 시즌 타율은 0.333(12타수 4안타)로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는 5-3으로 승리했다. 6연승을 질주한 샌프란시스



는 시즌 33승1패를 기록했다.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5)도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개러트드 레이트 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우익수 겸 2번타자로 선발출장,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3회초 유격수 방면에 내야안타를 친 추신수는 3-3으로 맞선 5회 선두타자로 나와 화이트삭스 선발 호세 퀴타나를 상대로 우전안타를 때려냈다. 이후 조나단 루크로이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득점에도 성공했다. 시즌 46득점째.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62로 소폭 상승했다. 텍사스는 5-6으로 패했다. 시즌 40승42패를 기록해 5할 승률에서 더 떨어졌다. 한편,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 결정했다.

뉴스스

뉴스스

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 12' 확정...최고의 별 최형우

감독·코치 포함 선수단 뽑은 최고 올스타 이대호



오는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개최되는 KBO 리그 별들의 축제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을 빛낼 24명의 올스타가 최종 확정됐다.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는 6월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O 앱과 KBO STATS 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팬 투표와 6월21일 경기가 열린 5개 구장에서 감독, 코치, 선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선수단 투표를 합산해 선정됐다.

총 투표수는 팬 21만3872표, 선수단 294표이며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70% 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 팬 투표는 지난해(171만5634표) 대비 투표수가 약 23% 가량 증가했다. 최고의 별은 KIA 최형우다. 팬 투표가 진행된 4주간 최다 득표 1위 자리를 단 한번도 내주지 않았던 나눔 올스타(NC, 넥센, LG, KIA, 한화) 외야수 부문의 최형우는 10개 구단 120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54.96점으로 KBO 리그 최고 인기 선수에 등극했다. 팬 투표에서는

118만7481표로 1위, 선수단 투표에서는 155표로 두산 김재호와 공동 6위를 기록했다. 감독,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이 뽑은 최고의 올스타는 드림 올스타(두산, SK, 롯데, 삼성, kt) 1루수 부문의 롯데 이대호였다. 선수단으로부터 294표 중 70%에 달하는 205표를 얻은 이대호는 120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200표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총점 54.35점(전체 49)으로 개인통산 8번째이자 2011년 이후 6년 만에 KBO 올스타전 무대에 서게 됐다. KIA 양현종은 팬(113만4100표)과 선수단(169표)으로부터 모두 해당 부문 후보 중 최다 득표를 얻어 총점 54.62점(전체 2위)으로 2015년 이후 2년 만에 나눔 올스타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서게 됐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총점 31.72점을 받은 두산 더스틴 니퍼트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선발투수로 나선다.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의 삼성 이승엽은 총점 54.41점(전체 3위)으로 개인통산 11번째이자 본인의 마지막 올스타전을 홈구장에서 치르게 됐다. 또한 이승엽은 올스타전이 열리는 7월15일 기준 나이가 40세 10개월 27일로 투수, 타자를 통틀어 최고령으로 베스트에 선정됐던 2000년 김용수(전 LG, 40세 2개월 21일)의 기록을 경신한다. 총점 32.60점으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베스트로 선정된 나눔 올스타 KIA 이범호는 이번이 3루수로만 개인통산 7번째 베스트 선정으로 역대 최다인 한대화(전 쌍방울)와 타이틀 이뤘다. 올 시즌 고졸 신인 넥센 이정후는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에서 총점 39.91점을 얻어 최형우, 로저 배나니(나눔) 이어 3위로 프로 데뷔 첫 해부터 올스타전 무대에 서게 됐다. 고졸 신인의 베스트 선정은 2009년 KIA 안치홍에 이어 2번째

다. 또한 올스타전이 열리는 7월5일 기준으로 이정후의 나이는 18세 10개월 7일로 2009년 당시 19세 23일이었던 안치홍의 최연소 베스트 출전 기록도 경신하게 된다. 이정후를 포함해 처음 베스트로 선정된 선수는 kt 김재운 두산 최주환, KIA 김윤동, 김민식, 버나디나, NC 임창민 등 7명이다. 이 중 최주환과 김윤동, 김민식, 이정후, 버나디나 등 5명은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한편, 이번 올스타 투표에서는 선수단과 팬심이 엇갈리기도 했다. 나눔 올스타 2루수 부문의 넥센 서건창은 선수단 투표에서 103표를 얻어 안치홍에 30표 이상 앞섰지만, 팬 투표에서 밀려 최종 점수 31.65점으로 안치홍(32.75점)에게 1.1점차로 뒤져 아쉽게 탈락했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두산 김재환(118표)과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NC 나성범(139표)은 해당 부문 선수단 투표에서 나란히 2위를 기록했지만, 팬 투표를 합산한 최종 점수에서 각각 손아섭과 이정후에게 자리를 내줬다. 나눔 올스타 3루수 부문 넥센 김민성(90표)과 드림 올스타 선발 투수 부문 롯데 박세웅(87표), 중간투수 부문 삼성 장필준(93표) 역시 선수단 투표에서 선전했지만, 아쉽게도 이번 베스트 12 선정에서 제외됐다. 팬과 선수단 투표로 선정된 24명 외에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두산 김태형, 나눔 올스타 NC 김경문)이 추천하는 감독추천선수는 각 팀 별 12명씩 총 24명을 추가로 선정해 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이번 팬 투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2017 KBO 올스타전 입장권과 팬스킨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20명, 1인 2매)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3일 정오에 KBO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U-18 축구대표팀 명단 발표 정우영·전세진·오세훈 발탁

U-18(18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소집 훈련을 앞두고 명단을 발표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18 대표팀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목포축구센터에 집결한다. 2년 뒤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한다. 이에 앞서 U-18 대표팀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예선을 치른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와 같은 조다. 10개조로 편성된 예선에서 조 1위를 하거나 2위팀 중에서 상위 5팀 안에 들면 내년 AFC U-19 챔피언십 본선(개최국 미정)에 참가한다. 이번 소집에는 이강인(스페인 발레시아) 등 해외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을 제외하고 총 23명을 뽑았다. 전반기 고교 왕중왕전에서 MVP를 수상한 전세진(수원메트로),며 칠전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정우영(인천대건고), 이상준(부산개성고), 김세현(서울보인고) ▲공격수= 김현(포항제철고), 오세훈(울산현대고)

니전 결승골을 넣은 장신 공격수 오세훈(울산현대고)도 뽑혔다. 정정용 감독은 "해당 연령대의 다양한 선수들을 체크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집에 부르지 않은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였다"며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한 뒤 10월 예선에 참가할 명단을 추려낼 생각"이라고 밝혔다.